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이름	김_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Cookeville
파견대학	Tennessee Tech University	파견기간	17년 8월말~ 18년 5월초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미국 테네시주 쿡빌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쿡빌 자체가 대학도시라 사람이 적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학교시설은 좋지만 어딘가를 나갈 때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착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인종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테네시주 자체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도시라 교회를 다니신다면 사람 만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016-2학기 수업	1학기 Art Appreciation 시험은 쉬웠지만 과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술용어가 어려워서 공부하기 까다로웠습니다 Mgmt/ Organization Behavior Business Management 전공수업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시험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Ballroom Dance 체육수업으로 스포츠댄스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지만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업 마지막에 하는 댄스파티는 촌스럽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빠져도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Slimnastics and Aerobics 체육수업으로 아침에 간단한 운동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면에서는 좋았지만 간단한 수업이라 자주 결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육수업 특성상 성적을 잘 줍니다. 참고로 수영수업도

포함되었습니다.

Back Country Adventure1

캠핑을 가는 수업입니다. 캠핑 한 번 갔다 오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Ballroom Dance 교수님과 같은 교수님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A줍니다. 하지만 Ballroom Dance 수업과 달리 출석체크를 하지만 그다지 효력은 없어 보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캠핑은 최대한 빨리 갔다 오시길 추천합니다. 11월쯤 되면 캠핑 가는 곳에 밤이 너무 추워집니다. 캠핑장비는 Gym에서 돈 주고 대여가 가능합니다.

College Reading Improvement

처음 학교에 가서 영어 레벨테스트를 치고 추천 받은 과목입니다. 수업에서 읽는 글에 단어와 문장이 쉬운 것도 있지만 아니고 토플지문 같은 것도 많습니다. 많은 글을 읽는 수업이라 도움이 될 거 같지만 이런 수업들 말고 자기 전공 중에 쉬운 수업을 듣는 것이 영어 실력향상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2학기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거시경제 수업입니다. 한국에서 거시경제 수업을 듣지 않아서 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얼마나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의입니다. 팀 과제는 없었습니다.

Marketing strategy

제가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전공 수업입니다. 학교에서 마케팅 수업들을 다 듣고 갔기 때문에 수업에 어려운건 없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하였던 경영 시뮬레이션이 새로운 경험이라서 재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과제 그렇듯 팀 과제를 할 때 팀원을 잘 만나야 합니다.

Music Appreciation

음악의 역사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수님도 좋았지만 내용도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음악감상 시험으로 말도 안되게 쉬웠습니다.

Intro Women & Gender Studies

흥미가 있어서 들었던 수업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책이나 기사를 읽고 그걸 토대로 페이퍼를 작성하고 매주 읽었던 글에 대해 시험을 칩니다. 수업은 토론과 발표 반, 교수님 강의 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제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와서 발표하는 것 이었습니다. 책 내용도 어렵고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두 분이셨는데 두 분다 말이 빠르고 억양이 강하셔서 수업을 따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심리학수업들은 쉬운 것도 있지만 가끔 몇 수업은 미국학생들도 따라가기

	<p>힘든 것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p> <p>제가 들던 모든 전공수업의 시험범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험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시험범위가 많았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국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프로그램으로는 버디 프로그램과 호스트패밀리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진행됩니다. 하지만 버디와 호스트패밀리는 복불복이 심해 감안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호스트패밀리 프로그램만 신청하였는데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p> <p>단기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오리엔테이션주에 거의 일주일 동안 적응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가끔 행사가 진행되며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또한 인터네셔널 오피스가 아닌 인터네셔널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니 초반에 친구를 사귀려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p>미국에 지내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찾아가셔서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강신청 때문에 에이미와 자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분들을 위해 기념품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전체적으로 날씨는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건조한 부산날씨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날씨 변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번은 영상 17도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주에는 영상 17도를 맴돌았습니다. 보통은 건조한 봄, 여름 날씨 입니다.</p>
안전	<p>학교 주변은 안전합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산책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니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저는 인터네셔널 기숙사인 MS_Cooper에서 생활하였습니다. 3, 4, 5층이 기숙사 인데 4층만 여자기숙사이고 3, 5층이 남자 기숙사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서 복도는 항상 쌀쌀합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저는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항상 춥게 해두어서 추위로</p>

	<p>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가시는 분이 추위를 많이 탄다면 전기장판을 들고 가거나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방에 이성을 데리고 오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청소해주셔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p> <p>인터네셔널 기숙사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로비나 복도에서 같이 떠돌고 놀면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첫 학기는 65밀플랜을 사용하였고 다음 학기는 40밀플랜을 사용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가 나쁘진 않지만 같은 음식에 조금 질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돈이 없거나 귀찮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어딜 나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 식당이 제한적이라서 먹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p>
교통	<p>기숙사의 위치가 좋아서 학교 내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쿡빌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학생증을 보여준다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한 시간에 두 대가 있어서 가끔 시간에 안 맞춰오거나 오지 않을 때도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 마트나 웬만한 음식점은 차가 없으면 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0만원(부산-LA) 40만원(LA-Nashville) 40만원(Nashville-LA) 95만원(LA-부산)	
Fees		
보험료	\$445	ISO (미국회사에서 구매) 기간을 잘못 생각해서 1달을 더 구매

숙소	600만원	한 학기당 약 300만원
식비	170만원 (밀플랜만)	65밀 약100만원 40밀 약 70만원
교통비		
책값		책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5~\$150)
생활비		한 달에 술 안마시고 여행가지 않는다면 학교 내에서 4~50만원이면 생활 가능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시기 전에 현지 학교랑 우리 학교에서 알려준 상황들만 잘 따른다면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개의 목표를 세워가시는 것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갔다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 곳은 시골이라 영어 쓸 기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미국을 경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미국생활을 꿈꾸신다면 도시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기 전보다 훨씬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나 무서움이 줄어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거리



학교 행사



교내 연극



1학기 끝나고 친구들 가기 전 바에서



볼룸댄스 파이널 파티



교내야구 구경하러 간 날